

2010 월드컵 개최지, 남아공 여행하기

조추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10 남아공월드컵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7회 연속 본선에 진출한 한국 대표팀은 조별 리그 B조에 속해 그리스,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와 오는 6월 결전을 치를 예정이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리는 최초의 월드컵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여행 및 월드컵 정보를 제공한다.

글 임동근 기자 · 사진 연합뉴스 DB, 인터아프리카(www.interafrica.co.kr),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뉴스팀



더반, 인도양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항구도시

남아공 동부의 항구도시 더반(Durban)은 남아공 백인 중상류층이 선호하는 휴양지이자, 남아공에서 가장 유명한 서핑 장소로 알려져 있다. 세계 최고의 파도와 무려 6km에 달하는 아름다운 모래사장, 연중 온화한 아열대성 기후는 누구에게나 '휴양'이란 단어를 떠오르게 한다.

더반은 '골든 마일(Golden Mile)'로 불리는 6km에 걸쳐 뻗어 있는 해변을 낀 비치프런트가 아름다운 곳이다. 호텔과 레스토랑이 노스 비치(North Beach)에서 사우스 비치(South Beach)까지 해변을 따라 들어서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으로 모여든다.

해안선과 평행하게 이어지는 머린 퍼레이드(Marine Parade)는 비치프런트의 메인 로드로 서쪽의 시내로는 고층의 리조트 호텔이 들어서 있고, 동쪽의 바닷가에는 바다 생물 1천200마리가 있는 시월드(Sea World), 더반 시내를 미니어처화한 미니타운(Minitown), 파충류 전문 동물원인 피츠시몬 스네이크 파크(Fitzsimmon's Snake Park), 유원지, 수영장 등의 놀이시설과 식당이 자리하고 있다.

해변을 따라서는 군데군데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수영장이 위치해 있다. 바닷물을 끌어와 만든 것으로 여유롭게 수영을 즐기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도심 남쪽의 나탈 만(Bay of Natal) 지역은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더반 페리 선착장 북쪽으로는 바스코 다가마 시계탑이 우뚝 솟아 있다. 1897년 바스코 다가마의 나탈 만 발견 400주년을 기념해 포르투갈 정부가 선물한 것이다.

더반 도심에서는 역사적인 건물과 박물관이 볼거리이다. 파인(Pine)가의 빨간색 벽돌 건물은 옛 철도역으로 지금은 투어리스트 정션

(Tourist Junction)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곳 2층에는 관광 안내소와 공원 관리국, 여행사 등이 있어 각종 지도와 팸플릿 등 여행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투어리스트 정션 맞은편에는 중앙우체국 건물이 자리하고 있고, 인근 광장은 벼룩시장으로 항상 번잡한 분위기를 풍긴다.

한편 웨스트(West)가에 위치한 시청에는 더반 자연과학박물관과 더반 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 건물은 1910년에 세워진 모던 르네상스 양식으로 호화로운 돔이 특징이다. 2층의 더반 자연과학박물관에는 수많은 동식물의 박제가, 3층의 더반 미술관에는 남아공 근현대 작가의 그림과 판화, 조각 등이 전시돼 있다.

더반 서부의 빅토리아 스트리트 마켓은 식품에서부터 의류까지 다양한 물품을 살 수 있는 서민 시장이다. 인도계 주민 구역으로 사리를 걸치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들을 볼 수 있다. 시장 남쪽으로 퀸(Queen)가와 브로드(Broad)가의 교차점에는 남아공 최대의 이슬람 사원으로 황금빛 첨탑이 눈부신 주마 모스크(Juma Mosque)가 있다.





포트엘리자베스, 해변이 아름다운 휴양지

남아공 제4의 도시 포트엘리자베스는 공업 도시이다. 그러나 도시에는 초록빛 싱그러움 녹음이 우거진 공원과 역사적인 건축물이 있고,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해변에서는 각종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등 관광 휴양지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포트엘리자베스(Port Elizabeth)는 희망봉을 발견한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1488년 배를 정박했던 곳으로, 이후 수백 년 동안 인도양을 지나 대서양으로 향하던 선박들에게 신선한 물과 식량을 공급하는 요충지였다.

무려 40km에 이르는 해변은 수질, 환경 교육 및 정보 제공, 환경 관리, 안전성에서 우수한 해변에만 주어지는 '블루 플래그(Blue Flag)' 인증을 획득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킹스 비치(King's Beach) 인근에는 '비치프런트 벼룩시장(Beachfront Flea Market)' 이 들어선다. 규모는 작지만 가격이 싸기 때문에 나무 조각상이나 액세서리 등 기념품을 구입하고 싶다면 헐값에 살 수 있다.

물론 푸른 바다에서는 서핑,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바다낚시, 요트를 즐길 수 있고, 베이월드(Bayworld)의 오서너리엄(Oceanarium)에서는 상어와 함께 수영하는 가슴 펄리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이 중 최고의 인기 종목은 스쿠버다이빙이다. 세계 최고의 스쿠버다이빙 포인트로 손꼽히는 벨 부이(Bell Buoy)나 버즈 아일랜드(Birds Island)에서는 화려한 산호초와 아름다운 열대어를 감상하고, 난파선 탐사 등을 경험할 수 있다.

하이킹 코스도 발달해 있다. 바켄스(Baakens) 강을 끼고 가는 23km 코스, 스왓콕스 계곡 자연보호 구역(Swartkops Valley Nature Reserve)을 탐험하는 22km 코스 등은 쉽게 걸을 수 있어 가족 여행객들에게 좋다.

한편 북쪽으로 7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애도 코끼리 국립공원(Addo

Elephant National Park)을 비롯해 스코시아(Schotia), 샴와리(Shamwari), 크라가 카마(Kragga Kamma) 등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는 아프리카의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다.

도심의 '던킨 문화유적 답사로(Donkin Heritage Trail)' 를 따라가면 이곳에 처음 발을 디딘 영국인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답사는 아름다운 시계탑이 돋보이는 시청사와 빅토리아 양식의 공공도서관이 있는 부이실레 미니 광장(Vuyisile Mini Square)에서 시작한다.

동방정교회의 지도자인 '프레스터 존(Prestor John)' 을 기념하는 십자가가 있는 플레밍 광장(Fleming Square)을 지나 캐슬 힐 로드(Castle Hill Road)의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다 보면 포트엘리자베스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주거지인 '넘버 세븐 캐슬 힐 박물관(No 7 Castle Hill Museum)' 을 만나게 된다.

이곳에는 19세기 중반 영국 중산층의 생활상이 그대로 재현돼 있다.

다시 부이실레 미니 광장으로 돌아와 답사로의 하이라이트인 '던킨 리저브(Donkin Reserve)' 에 오른다. 정상에는 초대 영국 케이프 식민지 총독 대리였던 던킨 경이 사별한 부인을 추모해 지은 피라미드와 1861년 세운 새하얀 등대가 서 있다.

동쪽으로 눈길을 돌리면 햇살 쏟아지는 알고어 베이(Algoa Bay)의 풍경이 내려다보인다.

한편 포트엘리자베스 공항에서 북쪽으로 70km 떨어진 곳에는 타이거우즈가 결혼 후 묵었던 '샴와리 게임 리저브(Shamwari Game Reserve)' 의 고급 로지가 자리잡고 있다.

요하네스버그, 위험하지만 흥미로운 곳

요하네스버그는 남아공월드컵 개막전 및 결승전, 한국-아르헨티나전이 열리는 사커 시티(Soccer City)와 엘리스파크(Ellis Park) 스타디움 등 월드컵 축제의 현장이 두 곳이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남아공은 금(Gold)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나라이다. 그중에서도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는 남아공 최대의 금 생산량을 자랑하는 곳으로 금과 함께 시작돼 지금까지 금과 함께 발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도시다.

요하네스버그는 1886년 호주인 조지 해리슨이 금광을 개발하면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보잘것없는 황무지에 지나지 않았던 이곳은 우연히 발견된 금맥으로 인해 인구가 급속히 늘고 규모면에서도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요하네스버그의 시내를 보면 고층빌딩들이 이룬 스카이라인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월드컵을 앞두고 세계인들이 우려하듯이 다운타운 지역은 여행자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기에 무척 위험하다. 밤에는 물론 대낮에도 거리에서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다운타운은 칼턴 센터(Carlton Centre)를 중심으로 동서로 펼쳐져 있다. 칼턴 센터에는 관광 안내소와 쇼핑센터가 있으며, 전망대에서는 요하네스버그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칼턴 센터 북쪽으로는 시청과 도서관, 옛 우체국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다운타운 북서쪽에는 연극, 코미디,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마켓 시어터(Market Theatre), 남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거대한 박물관인 뮤지엄 아프리카(Museum Africa)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동부에는 요하네스버그 미술관이 있다.

다운타운의 치안 악화와 슬럼화로 지금의 새로운 중심지는 북쪽의 샌턴(Sandton)이다. 높이 5m의 만델라 동상이 서 있는 벨스 만델라 광장 주변으로는 최고급 레스토랑이 늘어서 있고, 특급 호텔과 사무용 빌딩, 금융 기관, 상가 등이 밀집돼 있다.

레스토랑에서는 관광객들이 고급스런 식사를 즐기고, 광장에는 연인들이 찾아와 한가한 시간을 보내곤 한다. 흑인, 백인, 아시아계 등을 모두 볼 수 있어 광장은 인종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R**

들러볼 곳

몬테카지노(Montecasino) 포웨이즈(Fourways)에 있는 몬테카지노 센터는 요하네스버그 시민들이 한껏 치장하고 방문해 흥겨운 밤 문화를 즐기는 곳이다. 이탈리아 성모양의 몬테카지노 센터에는 카지노, 레스토랑 20여 곳, 공연장, 영화관, 상점, 고급 비즈니스 호텔 등이 들어서 있다. 영화관은 아프리카 최대의 스크린을 갖추고 있으며, 남아공 최대의 공연장인 '테아트르(The Teatro)' 에서는 2007년 브로드웨이 뮤지컬인 '라이언 킹' 이 무대에 올려지기도 했다. www.montecasino.co.za

멜빌(Melville), 놀우드(Norwood) 사람들이 밤에 모여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이다. '리틀 할리우드(Little Hollywood)' 라고 불리는 멜빌(Melville)은 남아공의 유명인과 음악가, 창작자들이 모이는 장소로 아이 카페, 고풍스런 서점과 레스토랑, 수공예품 판매상 등이 있다. 놀우드는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유대인 식당부터 인도 식당, 이탈리아 식당, 일본 식당 등 다양한 레스토랑이 즐비하다.

레세디(Lesedi) 민속촌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생활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아프리카 최강 전사인 줄루족부터 코사, 바스토, 페디, 은데벨레 등 5개 부족이 함께 살며 자신들의 생활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원주민이 직접 만든 다양한 수공예품이 판매되고, 각 부족의 현란한 춤이 공연된다.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타조 고기, 악어고기, 열대과일 등 아프리카를 느낄 수 있는 음식도 맛볼 수 있다. www.lesedi.com

소웨토(Soweto) 영화 '피워 오브 원' 의 무대가 됐던 곳으로 벨스 만델라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여행사 상품을 통해 방문할 수 있는 흑인 거주 구역으로 벨스 만델라 거리나 선술집을 둘러 볼 수 있다. 얼마 전만 해도 경찰과 함께 들어가야 하는 위험한 곳이었지만 지금은 관광 상품을 이용해 쉽게 돌아볼 수 있다. 이곳의 유명 레스토랑에서는 아프리카의 전통 음식과 남아공의 가정식 요리를 맛볼 수 있다. www.soweto.co.za



크루거 국립공원(Kruger National Park)

남아공 동부 모잠비크와의 국경선을 따라 북부의 음푸말랑가(Mpumalanga) 주와 노던 프라빈스(Northern Province) 주에 걸쳐 있는 넓이 1만9천633km², 남북 길이 352km, 동서 평균 길이 55km의 거대한 국립공원이다. 코끼리, 사자, 코뿔소, 표범, 버펄로, 악어, 얼룩말, 영양, 타조, 기린, 치타 등 거의 대부분의 아프리카 동물을 만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에 있어 세계 최대인 곳이다. 요하네스버그에서 비행기로는 약 1시간, 자동차로는 약 6시간이 걸린다.

크루거 국립공원에서는 동물을 찾아다니는 게임 드라이브(Game Drive)에 참가할 수 있고 12개 이상의 숙소 지구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항이 있는 스쿠쿠자 캠프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모이며, 이곳에는 도서관과 우체국, 상점 등 관광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남아공 및 주변국 주요 여행지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Cape Town)

남아공 남서쪽 끝의 아름다운 케이프 반도에 자리한 도시로 1652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보급기지가 건설되며 도시가 시작됐다. 남아공의 발상지로 '마더 시티(Mother City)' 라고도 불린다.

17세기 이후 네덜란드 이민자들에 의해 건설됐고 영국의 통치를 받았던 영향이 남아 있는 유럽을 떠올리게 하는 도시로 고전 유럽 양식의 건물들과 푸른 바다가 지중해 연안에 온 듯한 느낌이 들게 한다.

이곳의 상징은 '테이블 마운틴(Table Mt.)' 으로 이름 그대로 산 정상이 테이블처럼 평평하다. 건너나 360° 회전하는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오를 수 있는데, 정상에서는 시원하게 펼쳐진 푸른 대서양과 시내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또 테이블 베이의 빅토리아 & 앨프리드 워터프런트에 가면 유럽 지중해 연안을 방문한 듯한 낭만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빅토리아 & 앨프리드 워터프런트(V&A Water Front) 도심 북쪽의 테이블 베이(Table Bay)에 자리한 유럽의 정취가 물씬 풍겨나는 곳이다. 테이블 마운틴을 배경으로 쇼핑센터, 레스토랑, 박물관, 술집, 마켓 등이 모여 있는 케이프타운의 최대 명소 중 한 곳이다. 이탈리아, 일본, 벨기에, 독일, 프랑스 등 다양한 국적의 레스토랑이 있다. 밤에도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낭만에 빠질 수 있는 곳이다. 특설 무대에서는 금을 깨던 광부 복장을 한 광대들의 마린 댄스, 아마추어 밴드, 재즈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돼 관광객들에게 흥겨움을 준다. 항구에서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복역 기간 27년 중 18년을 보냈던 로빈 아일랜드까지 운항하는 크루즈가 출발한다. 당시 복역했던 장소는 박물관으로 개조돼 있다.



희망봉(Cape of Good Hope)과 케이프 포인트(Cape Point) 케이프반도의 최남단 희망봉은 1488년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발견한 곳으로, 이름에는 아시아로 가는 새 항로를 개척하는 희망의 뜻이 담겨 있다. 희망봉 국립공원 게이트를 통과하여 15분 정도 차로 달리면 룩 아웃 포인트(Look out Point)라는 등대가 있는 전망대에 도착한다. 전망대에서는 반도의 최남단인 케이프 포인트(Cape Point)가 내려다보인다. 케이프 포인트 등대의 왼쪽은 인도양, 오른쪽은 대서양으로 이곳에는 각 대륙 주요 도시의 방향과 거리를 표시한 이정표가 세워져 있다. 전망대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희망봉이 보인다. 희망봉은 케이프 포인트의 서쪽에 위치해 있다. 관광객은 이곳 희망봉 표식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며 아프리카의 최남단을 밟았다는 증거를 남긴다.



볼더스 비치 케이프 반도 동쪽 중간쯤의 사이먼스 타운(Simon's Town)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가면 나타나는, 바위로 둘러싸인 작은 해변으로 자카스(Jackass) 펭귄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흰 줄무늬가 있는 펭귄으로 새끼는 머리 부분에 검은 털이 나 있다.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지만 만지거나 놀라게 해서는 안된다. 이곳은 바위로 둘러싸인 지형 때문에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어 스노클링 초보자에게 적합한 곳이기도 하다.



투 오션 아쿠아리움(Two Ocean Aquarium) 워터프런트의 명소로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지역적 특성을 따서 이름 붙여진 수족관이다.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상어, 거북, 펭귄, 열대어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을 볼 수 있고, 커다란 유리벽을 통해서 해초들이 넘실대는 바다 속을 거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색 코스다.

▶▶ 짐바브웨

빅토리아 폭포(Victoria Falls)

빅토리아 폭포는 탐험가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1855년 발견한 곳으로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이다. 폭포의 폭은 1천700m이며, 낙차는 100~150m에 이른다. 물보라도 높이 200~350m까지 치솟아 오른다.

짐바브웨와 잠비아에 걸쳐 있는 빅토리아 폭포를 관람하는 방법은 짐바브웨의 관광 마을인 빅토리아 폴스(Victoria Falls)에 머물면서 두 나라를 오가며 돌아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폭포는 산책로를 따라가며 감상할 수 있는데 가장 웅장한 것은 폭 500~600m의 메인 폭포이다. 폭포수가 떨어지는 계곡을 향해 뛰어내리는 번지점프에 도전하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

한편 빅토리아 폭포를 이루는 잠베지 강에서는 낭만적인 선셋 크루즈를 즐길 수 있고, 폭포를 하늘에서 감상할 수 있는 비행 관광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나미브(Namib) 사막

나미비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 장소는 나미브 사막에 있는 나미브-나우클루프트(Naukluft) 국립공원이다.

나미브-나우클루프트 국립공원은 대서양 연안의 휴양 도시인 스와코프문트(Swakopmund)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이 4만7천km에 이르는 야생보호구역이다. 경이로운 사막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곳에서의 사막 하이킹은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준다. 하이킹 루트에는 캠프장이 여러 곳 있으며 120km의 왕복 여행에 약 8일이 소요된다.

나미브 사막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세스리엠(Sesriem)은 평평한 사막의 끝에 거대한 모래언덕이 산맥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나미브 사막의 모래언덕 중 자태가 가장 아름답다는 '모래언덕(Dune) 45'가 자리하고 있다. 해 질 녘에 모래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황홀하기만 하다.

한편 세스리엠 인근의 소스서스블레이(Sossusvlei)는 대서양을 향해 흐르던 자우잡 강이 늪지대에 막히며 생긴 웅덩이의 흔적으로 사막화가 진행되는 외계의 행성에 온 듯한 기괴하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다.

스와코프문트(Swakopmund)

대서양 연안 중부에 위치한 해변 휴양 도시로 야자수가 드리워진 아름다운 해변과 잘 가꾸진 정원과 도로가 휴양지 분위기를 풍긴다. 19세기 후반 독일이 점령하고 있을 때 지은 뾰족 지붕의 화려한 건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독일인의 후세들이 여전히 독일풍 생활을 이어가는 곳이다.

변화한 시내에는 값싸고 시설 좋은 숙소를 비롯해 아프리카 토속 관

광 기념품점, 맛 좋은 요리를 내는 식당과 전망 좋은 카페 등 관광객을 유혹하는 다양한 시설이 있다.

스와코프문트의 진정한 즐거움은 사막에서 펼쳐지는 각종 레저스포츠에 있다. 사막에서의 4륜 오토바이, 샌드보딩, 스카이다이빙 등 어디에서도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케이프 크로스(Cape Cross) 물개 보호지구

북부 해안에서 스켈리턴(Skeleton)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휴양 도시인 스와코프문트에 조금 미치지 못한 곳에 위치한 케이프 크로스 물개 보호지구는 물개 수만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물개들의 낙원이다. 해변에서는 시위라도 하듯 바닷가 바위를 까맣게 채우고 있는 물개들을 볼 수 있다. 바위에 엎드려 한가하게 낮잠을 자거나 뒹뒹뒹 어미를 쫓는 어린 물개, 과도에 몸을 실은 물개, 1m 정도의 거리에서 관광객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물개 등 물개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이다.



» 보츠와나

오카방고(Okavango) 삼각주

앙골라 중앙에서 발원한 오카방고 강이 나미비아 북동쪽 카프리비 스트립(Caprivi Strip)을 거쳐 보츠와나 북서쪽으로 유입되며 쏟아낸 연간 185억m의 강물이 형성한 습지로 강물이 증발되고 흡수되며 수로와 섬을 만들어낸 곳이다.

원주민이 기다란 나무로 수로 바닥을 밀어 이동하는 모코로를 타고 삼각주 안쪽의 캠프장으로 진입해 텐트를 치고 밥을 해 먹는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진정한 캠핑을 만끽할 수 있다.

아침과 저녁에는 원주민을 따라 임팔라, 코끼리, 얼룩말, 버펄로 등 야생동물을 찾아 나서는 트레킹에 참가하고, 캠프에 불을 피우고 여행자와 음식과 술을 즐기며, 대화를 나누는 낭만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

Information

2010 남아공월드컵이나 전후로 아프리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남아공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대한 여행 정보를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좋다.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등 남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여행 필수 정보와 여행 상품을 소개한다.

지리와 기후, 시차 남부 아프리카는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과 계절이 정반대이다. 11월~이듬해 3월이 여름이고, 겨울은 5~8월이다. 월드컵이 열리는 6월은 가장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어 건조한 날씨를 보인다. 겨울철 해안은 따스하지만 내륙은 지역에 따라 최대 20℃의 일교차를 보이며 한밤중에는 영하에 가깝게 기온이 내려가기도 한다. 월드컵 개최지인 남아공의 서남쪽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에는 따스하지만 겨울에는 비가 내리기도 한다. 시차는 한국보다 7시간 늦다.

비자 남아공은 30일간, 스와질랜드와 레소토는 60일간, 보츠와나는 90일간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나미비아 비자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나미비아 대사관(+27-012-344-5992)이나 케이프타운 중심가의 나미비아 관광청(+27-022-419-3190)에서 받을 수 있다. 여권과 여권용 사진 2장, 영문 여행계획서, 신청서, 수수료(213랜드) 등이 필요하다. 짐바브웨는 국경이나 공항에서 입국 비자를 받는다. 여권과 신청서, 수수료 30달러를 준비해야 한다.

통화, 환율, 환전 남아공은 랜드(R), 나미비아는 나미비아달러(NS), 보츠와나는 풀라(P), 짐바브웨는 짐바브웨달러(Z) 등 국가마다 각기 다른 통화를 사용한다. 미국달러를 미리 준비한 다음 현지의 도시나 큰 마을의 은행에서 필요한 만큼 조금씩 바꾸도록 한다. 한 국가에서 환전한 돈은 그 지역에서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남아공과 나미비아는 교환비율이 같아 두 나라 화폐가 함께 사용된다. 그러나 남아공에서는 나미비아달러를 사용할 수 없다. 2009년 12월 중순 기준으로 1USD(약 1천170원)는 7.5R, 6.7P이다.



항공편 남아프리카항공, 캐세이퍼시픽, 싱가포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카타르항공 등이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의 하늘 길을 잇고 있다. 한국에서 남아공까지의 직항편은 없으며, 홍콩,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을 거쳐서 가야 한다. 총 비행 시간은 16시간 30분~19시간이 걸린다.

예방접종 아프리카 여행에 앞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말라리아, 황열병, 장티푸스 등의 질병이다. 그러나 실제 아프리카 여행에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안전한 여행을 위해 황열병과 말라리아, 장티푸스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한 후 떠나는 것이 좋다. 황열병 예방주는 국립의료원(02-2260-7092), 인천공항 검역소(032-740-2703), 국립 부산검역소(051-463-3501), 국립 목포검역소(062-244-0941) 등 전국 14곳에서 맞을 수 있다. 반드시 예약해야 하며, 여권을 지참하도록 한다. 비용은 접종비와 접수비를 합쳐 총 2만1천 원이다. 말라리아와 장티푸스는 가까운 보건소에 가면 해결할 수 있다. 말라리아는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복용하도록 하고, 장티푸스 약은 주사로 맞는다.

전압 대부분 220~240V AC를 사용한다. 플러그는 납작한 사각형 부리가 3개인 것을 사용한다. 남아공의 경우 둥근 부리 1개와 납작한 4각형 2개가 달린 것을 사용한다. 멀티플러그를 미리 준비해 가도록 한다.

2010 FIFA WORLD CUP SOUTH AFRICA

>> 한국 대표팀 조별 리그 경기장 소개

넬슨 만델라 베이 스타디움(Nelson Mandela Bay Stadium)

상대팀 그리스 일시(한국시간) 6월 12일(토) 오후 8시 30분

남아공 남부 해안의 중간쯤에 자리한 휴양 도시 포트엘리자베스의 도심 북쪽 지역의 '노스 엔드(North End)' 호숫가에 자리하고 있다.

월드컵을 앞두고 신축된 경기장으로 식빵에 칼집을 넣은 듯 독특한 구조의 흰색 지붕이 눈길을 사로잡고, 경기장 바로 옆의 호수,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과 잘 어울리게 설계돼 있다. '선플라워(해바라기) 스타디움'이라 불릴 만큼 아름답고도 독특한 외관을 자랑한다.

대형 스크린 2개가 설치돼 있고,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 2곳이 마련돼 있다. 회전식 출입

구 32곳과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 4곳이 준비돼 있으며, 화장실은 74개소가 있다. 또 월드컵 기간에

는 간선급행버스(BRT)가 도시의 여러 지역과 관광지를 연결할 예정이다.

축구 이외에 럭비 경기, 각종 공연을 위해 활용되며 4만5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월드컵 때는 4천 석 규모의 가변 좌석이 설치된다. 40m 높이의 거대한 구조로 서쪽은 6층, 나머지는 5층으로 설계됐다.

이곳에서는 16강전, 8강전, 3-4위전 등 총 8경기가 펼쳐진다.



숙박, 교통, 치안

포트엘리자베스 시내에는 5성급 호텔이 단 1개밖에 없고, 3, 4성급 호텔도 총 16개에 불과하다. 넬슨 만델라 베이 광역시 당국이 유엔헤그와 데스패치 지역까지 포함한 모두 6천722개의 객실을 확보해 제공할 계획이지만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붉은악마와 같은 대규모 응원단이 저렴한 비용으로 한꺼번에 묵을 만한 숙박 시설은 전혀 없다. 경기장 인근에 팬 페스트(대형 스크린으로 월드컵 경기를 시청하며 응원하는 장소)가 운영될 예정이지만 캠프장은 전혀 없다.

교통도 문제다. 항공권을 확보하기 어려워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에서 포트엘리자베스까지는 이동 시간이 각각 11시간, 8시간에 달한다.

다행히 이곳은 남아공에서도 범죄율이 가장 낮은 곳에 속해 안전하게 응원을 할 수 있다.

요하네스버그 사커 시티(Soccer City)



상대팀 아르헨티나 일시(한국시간) 6월 17일(목) 오후 8시 30분

요하네스버그 남서쪽의 흑인 거주지인 소웨토 근교에 위치한 남아공 최대 규모의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남아공월드컵의 개막식이 열리는 곳이다.

'칼라바시(Calabash)'로 알려진 둥근 박 모양의 아프리카 전통 도자기 모양을 모자이크로 형상화한 디자인의 경기장으로 월드컵 본선 경기가 열리는 10개 경기장 가운데 가장 많은 9만4천7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곳은 26년의 수감 생활을 했던 넬슨 만델라가 석방된 1990년 수많은 군중이 대대적인 환영 집회를 열었던 곳이자 1993년에는 암살된 남아공 공산당 의장 크리스 하니를 추모하는 군중이 모였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요하네스버그 지역은 1천753m의 고지대로 기압이 낮아 슈팅 속도가 빨라지고 축구공이 멀리 날아가는 특징이 있으며, 산소량 부족으로 선수들의 체력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이런 조건 때문에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장이다.

요하네스버그의 또 다른 월드컵 경기장인 엘리스파크(Ellis Park) 스타디움과는 11km 떨어져 있다.

6월 11일 남아공과 멕시코의 개막전을 비롯해 16강전, 8강전, 결승전 등 8경기가 진행된다.

숙박, 교통, 치안

숙박 여건은 좋은 편이다. 요하네스버그와 자동차로 40분 거리인 프리토리아 일대에 숙박 시설이 많고, 교민 가정도 500여 가구에 달해 교민 사회를 통해 일부 숙박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남아공 한인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민박 신청을 받아 한국 응원단에 숙박을 알선할 계획이다.

교통 문제는 외국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걱정이다. 공항 도착에서부터 숙소까지, 숙소에서 경기장까지의 교통편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

요하네스버그의 치안은 '범죄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남아공에서도 최악이다. 특히 요하네스버그의 다운타운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경찰 치안력도 미치지 않는 관광객들의 '출입 금지' 구역이다.

더반 스타디움(Durban Stadium)

상대팀 나이지리아 일시(한국시간) 6월 23일(수) 오전 3시 30분

남아공의 노동운동가 모세스 마비다(Moses Mabhida)의 이름을 따서 '모세스 마비다 스타디움'으로도 불리는 곳으로 남아공 최고의 항구 도시 더반에 위치하고 있다.

7만 석 규모의 신축 경기장으로 길이 350m, 높이 106m의 아치 지붕을 자랑하고 있는 구조이다. 특히 방문객들은 '스카이 카'를 이용해 아치의 가장 높은 곳에 도착해 인도양과 도시의 환상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경기장 남쪽 부분의 두 개로 갈라진 아치에는 각각 550개의 계단이 설치돼 걸어서 경기장 지붕까지 올라갈 수 있다. 반지 점프대도 있어 경기장 잔디 바닥을 향해 몸을 던지는 스릴을 맛볼 수도 있다.

더반은 남아공리가 처음 시작된 축구의 도시로, 남아공 역사상 첫 메이저대회 우승이었던 1996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의 4강과 8강전이 치러졌다. 더반은 기존 킹스 파크(Kings Park) 스타디움에 더반 스타디움이 더해지면서 남아공의 축구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곳에서는 조별 리그 5경기를 비롯해 16강전, 4강전 등 7경기가 펼쳐진다.



숙박, 교통, 치안

2만5천 개의 호텔 객실을 확보해 놓고 있다. 월드컵 관람객을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숙박 시설이 넉넉한 셈이다. 단체응원단의 경우 경기장에서 30분 거리의 기숙학교를 이용하거나 더반 시와 협의를 통해 캠프장 설치도 가능할 전망이다.

치안이 좋은 지역은 아니다. 특히 한국-나이지리아전이 오후 8시 30분에 시작돼 오후 11시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범주의 타깃이 될 염려가 커 속소로 돌아갈 때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남아공 월드컵 여행 상품

아프리카 전문 여행사인 인터아프리카(INTERAFRICA)가 2010 남아공 월드컵 경기 관람과 짐바브웨의 빅토리아 폭포, 보츠와나 사파리 투어를 연계한 월드컵 상품을 12월 말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02-775-7756, www.interafrica.co.kr



남아공 월드컵 티켓 구입 방법



특정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개별 매치 티켓(Individual Match Ticket)과 특정 팀을 지칭하는 TST(Team Specific Ticket)가 있다. 우선 한국팀의 조별 리그 한 경기를 관전한다면 개별 매치 티켓을, 세 경기를 모두 보고 싶다면 'TST'를 선택하면 된다. 조별 리그 결과는 미지수지만 이후에도 한국팀의 경기를 계속 보고 싶다면 결승전까지 미리 사둘 수 있다. 그러나 한국팀이 떨어지면 나머지 티켓 반환 시 티켓 가격의 10%를 돌려받지 못한다. 현재 티켓 3차 판매는 1월 22일까지, 4차는 2월 9일-4월 7일, 마지막은 4월 15일-7월 11일이다. 물론 4차나 5차는 남은 티켓이 있을

경우에 한하며, 선착순으로 판매된다. 티켓은 2010 피파(FIFA) 월드컵 남아공 공식 사이트의 티켓 판매소(www.fifa.com/worldcup/organisation/ticketing/index.html)를 통해 한 명이 경기당 4장까지 구입할 수 있다.

개별 매치 티켓 가격

경기	카테고리1	카테고리2	카테고리3	휠체어
개막전	450	300	200	70
조별 리그	160	120	80	20
16강전	200	150	100	50
8강전	300	200	150	75
4강전	600	400	250	100
3,4위전	300	200	150	75
결승전	900	600	400	150

*카테고리는 경기장에서의 좌석 위치를 나타냄

TST(Team Specific Ticket) 가격

TST Series	티켓 개수	카테고리1	카테고리2	카테고리3	휠체어
TST-3	3	528	396	264	66
TST-4	4	748	561	374	121
TST-5	5	1,078	781	539	204
TST-6	6	1,738	1,221	814	314
TST-7	7	2,728	1,881	1,254	479